



한국 남자 핸드볼대표팀이 18일부터 28일까지 수원에서 열리는 제18회 아시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에 참가한다.

‘우리는 아시아 정상이었다’

아시아선수권대회, 18~28일 수원 개최... 남자 핸드볼, 6년 만에 왕좌도전

한국 남자 핸드볼이 6년 만에 다시 아시아 정상에 도전한다. 대한핸드볼협회는 “남자대표팀이 18일부터 28일까지 수원에서 열리는 제18회 아시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에 참가한다”고 10일 밝혔다. 14개국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각 조 상위 2위까지 결선에 올라 8개국 이상이 다시 2개로 갈라진다. 여기서 각 조 상위 2개국이 4강 토

너먼트를 거쳐 우승을 가린다. 한국은 개최국 자격으로 조를 선택할 권리를 확보 C조를 택했다. 이밖에 미리트, 인도, 방글라데시와 경쟁한다. 한국은 그동안 이 대회에서 우승 9회, 준우승 3회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우승이 없다. 2014년 대회에서 5위, 2016년 대회에서 6위에 만족했다. 이번 대회에는 제26회 독일-덴마크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도 걸려 있다.

조영신 감독은 “한일정기전, 서울컵, 유럽과 중동 전지훈련을 통해 선수들을 파악하고 각 포지션 최고 선수들로 대표팀을 구성했다”며 “남자 핸드볼 자존심 회복의 기회이자 8월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 시험 관문이다. 지난 두 차례에 출전하지 못한 세계선수권대회의 티켓도 걸린만큼 아시아 왕좌를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뉴시스

평창 기념 동전·지폐 세트 예약판매, 종합세트 1100만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 주화와 은행권 특별기획 세트가 나왔다. 금화 4, 은화 15, 황동화 2종 등 기념주화 21종과 낱장, 연결, 전지형 기념은행권을 포함한 전화중 세트다. 이희범 조직위원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대외 홍보대사 안순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서울 충정로 풍산빌딩에서 첫선을 보였다. 88서울올림픽의 영광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연결된다는 의미로 '88'과 2018의 '8'을 결합한 888세트로 한정했다. 판매가는 1100만원이다. 원하면 개인이나 법인의 이름과

10자 이내 문구를 케이스에 새겨준다. 15~26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신한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우체국(방문 접수)과 풍산화동양행(온·오프라인 접수)으로 구매를 예약하면 2월 19~23일 받을 수 있다. 구매자명은 대회 후 강원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념관의 기념물에 새겨져 대회유산으로 남게 된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류현진, 올시즌 다저스 제5선발” 전망

MLB닷컴, 커쇼·힐·우드·마에다와 함께 선발 로테이션 포함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1·LA 다저스)이 올 시즌에도 다저스 선발진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IB닷컴과 로스앤젤레스 미디어 오렌지카운티레지스터 등은 10일(한국시간) 2018시즌 다저스의 선발 로테이션을 점검하며 류현진을 제5선발로 꼽았다.

MIB닷컴은 “다저스는 클레이튼 커쇼, 리치 힐, 알렉스 우드, 마에다, 젠타, 류현진이 5인 로테이션을 소화할 것”이라고 봤다. “지난해 다저스 선발진은 정규시즌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좋은 평균자책점 3.39를 기록했다”며 “다저스의 선발 5명은 지난 시즌 최소한 24년 이상의 선발 등판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오렌지카운티레지스터도 “자유계약선수(FAX)인 다르빗슈 유와 계약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저스에 선발 투수는 충분하다. 커쇼와 힐, 우드, 마에다, 류현진이 견재하다”면서 류현진을 로테이션에 포함했다.



부활한 류현진이 지난 시즌에 이어 다저스 막강 선발진을 구성할 것이라는 낙관론이다. 지난해 후반기 트레이드로 다저스에 합류한 다르빗슈의 다저스 잔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선발 요원이

던 브랜던 매카시와 스콧 카즈마이어도 트레이드되면서 류현진은 지난해보다 안정되게 로테이션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은 2015년 어깨에 이어 2016년 팔꿈치까지 두 차례 수술을 받고 2년의 공백을 가졌다. 지난 시즌 부상을 털고 복귀해 5승9패 평균자책점 3.77로 재기에 성공했다. 후반기에는 더 나은 모습을 보이며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했다.

다만 5선발인만큼 팀내 선발 유망주의 성장세에 따라 기회를 나눠 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시즌 한때 다저스는 사실상 6인 로테이션을 가동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류현진은 등판 일정이 불규칙하게 편성되기도 했다.

올 시즌을 끝으로 류현진은 다저스와 4년 계약이 만료된다.

자격을 얻는 류현진으로서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KCC·SK, 공동 2위팀 나란히 승진보

공동 2위에 올라있는 전주 KCC와 서울 SK가 나란히 승리를 거뒀다. KCC는 9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벌어진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와의 경기에서 71-60으로 완승했다.

승리로 22승(11패)을 따낸 KCC는 공동 2위를 굳게 지켰다.

KCC는 현대모비스와 리바운드 싸움에서 36-26으로 우위를 잡았다.

국내 최장신 센터 하승진(221cm)이 골밑을 휘저으며 21득점 10리바운드로 ‘더블더블’ 활약을 선보였다. 찰스 로드가 17득점 10리바운드로

골밑에 힘을 더했다.

이정현은 3점포 두 방을 포함해 15득점 6어시스트를 기록, 외곽에서 지원사격했다.

현대모비스는 13패(20승)를 기록했다. 4위를 유지했지만, 5위 인양 KCC인삼공사(19승 13패)에 반 경기 차로 추격당하게 됐다.

레이션 테리가 22득점 5리바운드로 분전했지만, 팀 패배에 고개를 숙였다. 3점포 두 방을 터뜨리며 14점을 올린 이대성의 활약도 빛이 바랬다. 인천삼산생명체육관에서는 SK가 인천 전자랜드를 98-77로 완파했다.

2연승을 거둔 SK는 22승(11패)를 수확해 공동 2위를 지켰다.

두 외국인 선수 에런 헤인즈와 테리코 화이트가 각각 24득점 13리바운드, 23득점 6리바운드 7어시스트로 활약하며 SK 승리를 생겼다.

최준용이 12득점 9리바운드 5어시스트로 힘을 보탤다.

전자랜드는 브랜든 브라운(20득점 10리바운드)과 조쉬 셀비(18득점 7어시스트), 차바우(17득점)의 활약 속에서도 상승세를 잊지 못했다. 4연승, 홈경기 3연승을 마감한 전자랜드는 15패(18승)를 기록했다.

6위 전자랜드와 5위 KCC인삼공사의 격차는 1.5경기로 벌어졌다.

/뉴시스

‘복싱 전설’ 메이웨더, 래퍼로 변신 한국 온다

은퇴 후 래퍼로 변신한 미국의 전설적인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41)가 한국을 찾는다.

9일 스트리트 브랜드 바이브레이트에 따르면 메이웨더는 오는 28일 신사동 바이브레이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한국 팬들을 만난다.

이날 메이웨더 외에 인기 래퍼 빌 웨인, 떠오르는 힙합 루키 팀 제임스가 함께 한다.

열렬한 힙합 마니아로 잘 알려진 메이웨더는 본인의 공식 브랜드 TMT



산하 음과 레이블 TMT 뮤직 그룹을 론칭했다.

팀 웨인, 팀 제임스와 함께 TMT 뮤직을 한국에 알리기 위해 첫 내한을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메이웨더는 총 자산 규모가 1조가 넘는 정도로 거물급 스포츠 스타로 통한다.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스포츠 스타다. 메이웨더의 별명은 ‘머니’로 그의 낱다른 돈지림은 항상 화제를 낳은 바 있다.

메이웨더는 1996년 데뷔 이후 49전 무패를 기록했다.

메이웨더는 27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2018 서울폴 TMT 뮤직 그룹 콘서트'도 연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